

# 젊은피 3총사 '許心' 잡았다

김보경 스피드·볼 감각 뛰어나  
이승렬 공격진 '해결사' 눈도장  
구자철 경기 조절능력 큰 기대



〈김보경〉 〈이승렬〉 〈구자철〉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한국 축구의 세대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허정무 감독은 나아가 "경험을 쌓게 하고 더 커 나갈 길을 열어주고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대주 한두 명을 남아공 월드컵 본선 최종 엔트리에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까지 말해 왔다.

이런 허 감독의 생각은 30일 발표된 남아공 월드컵 예비 엔트리 30명에 그대로 나타났다.

30명에는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을 8강까지 이끈 주역들이 김보경(오이타)과 이승렬(서울)·구자철(제주) 등 스피드있는 젊은 '열전 3인방'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미 벌써 대표팀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중앙 미드필더 기성용(셀틱)과 함께 대표팀 막내다.

허정무 감독은 이날 엔트리 발표 후 "어리지만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 선수 발탁은 결코 나이와는 상관없다. 어리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선발 기준은 분명히 경쟁력이었다"며 '젊은피'들의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허정무 감독 부임 이후 국가대표로 발탁돼 성장한 김보경과 이승렬·구자철의 예비 엔트리 발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세 명 중 가장 먼저인 2008년 2월 중국과 동아시아연맹선수권대회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미드필더 구자철은 국가대표로 벌써 8경기를 뛰며 2골을 넣었다.

미드필더 김보경과 공격수 이승렬도 지난 1월 남아공 전지훈련 중

치른 잠비아와 친선경기를 통해 A매치에 첫 선을 보인 이후 허정무 호에서 각각 4경기, 5경기를 뛰는 등 꾸준히 기량을 뽐낼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이들이 최종 엔트리 23명에 들려면 경쟁한 선배들을 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들 세 명 중 김보경이 최종 엔트리 23명에 들 가능성이 가장 크다. 홍익대를 다니다 올해 일본 J-리그 세레소 오사카에 입단하자마자 더 많은 출전기회를 찾아 2부 리그 오이타로 임대된 김보경은 미드필더임에도 올 시즌 정규리그 9경기에서 출전해 6골을 넣어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허 감독은 김보경에 대해 "어린 선수이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는데 스피드와 볼 감각이 뛰어난 선수다"라고 칭찬해 왔다.

공격수 이승렬의 활약도 기존 선배 공격수들에게 자극을 주고 있다. 허 감독은 "박주영(AS모나코) 외에는 확실한 해결사가 없다"며 공격 쪽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 왔다. 이승렬은 올해 K-리그에서 7경기 나와 2골 2도움을 올리며 서울의 상승세에 큰 힘을 보탤 듯, 대표팀 합류로 기존 공격진의 경쟁에도 새 바람을 불려일으켰다.

중앙 미드필더 자원인 구자철도 올 시즌 제주에서 9경기를 모두 뛰며 3도움을 올렸다. 패기 넘치는 플레이는 물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경기 조절 능력이 구자철의 무기다.

중앙 미드필더에는 주전인 김정우(광주)·기성용(셀틱) 외에도 베테랑 김남일(풀 브로스)은 물론 조원희(수원)·신형민(포항) 등 자원이 넘치지만 구자철도 최종 엔트리 경쟁에 자신 있게 도전장을 던졌다. /연합뉴스

## 전남, 수원 잡고 '꿀지 탈출'

'인디오 맹활약' 흠칫 승 신고  
광주는 울산 원정 2-2 무승부

전남 드래곤즈가 수원 삼성을 제물로 연패의 늪에서 탈출했다.

전남 드래곤즈는 1일 안방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의 K-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인디오와 정윤성의 골에 힘입어 2-0, 홈에서의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지난 3라운드 대구와의 대결 이후 7경기 만에 맞은 승리이자 최근 4연패 탈출을 알리는 귀중한 승리였다.

광양과의 대결은 14위 수원과 15위 전남, 두 위기의 팀이 맞붙는 혈전이였다.

인디오와 지동원을 앞세운 전남은 전반 8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미드필더 지역에서 백승민이 올려준 공을 받은 인디오가 중거리포를 날리며 수원의 골문을 갈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제골을 장식한 인디오는 전반 37분에는 정윤성과 팀의 두 번째 골을 합작하며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끝까지 열두골의 활약까지 더해 전남은 끝문을 완벽 수성하며 2-0으로 승리를 거뒀다.

수원은 팀 장단 후 최다인 6연패를 기록하며 최하위로 추락했다.

원정길에 나선 광주 상무는 갑작 울산 현대를 상대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평범한 힘 대결을 벌이던 양팀이 전반 25분과 28분 한 골씩 주고받았다. 전반 25분 울산 김신욱이 헤딩골을 터트렸으나 3분 뒤 국가대표 미드필더 김정우가 동점골을 맞았다.

전반 33분에는 김동현이 그동안의 부진을 털는 역전골을 터트리며 전반은 2-1 상무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상무는 후반 22분 울산 오르티고사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박주영 아쉬운 120분  
AS모나코 프랑스컵 준우승

한국 축구대표팀의 간판 골잡이 박주영(25·AS모나코)이 프랑스컵 결승전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연장전까지 120분을 분전했으나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는 못했다.

박주영은 2일(이하 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09~2010 프랑스컵 파리 생제르맹과 결승전에 선발로 나와 전·후반 90분과 연장전 30분 등 120분을 넘겨 뛰었다.

모나코는 연장전 전반 인제리타일에 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프랑스컵 준우승으로 만족하고 말았다.

박주영은 한국 선수뿐 아니라 아시아 선수로서 처음으로 프랑스컵 결승전에 뛰었다는 발자취를 남겼다. /연합뉴스

## 김연아 '밴쿠버 점수' 불멸의 기록 되나

ISU, 더블 악셀 3회→2회, 쇼트 구성 8개→7개 축소 등 개정 작업 나서



김연아가 2일 오전 과천시 빙상장에서 관민정·김혜진 등 피겨 유망주들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는 쇼트프로그램에서 쇼트프로그램(78.50점)과 프리스케이팅(150.06점)은 물론 총점(228.56점)까지 역대 최고점 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은메달을 차지한 아사다 마오(일본·205.50점)와 무려 23.06점이나 높은 대단한 점수였고, 전 세계 피겨팬들은 김연아를 진정한 피겨퀸으로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2010~2011 시즌을 앞두고 피겨스케이팅 규정 개정작업에 나서면서 김연아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세웠던 대기록들은 다른 선수들이 절대 넘볼 수 없는 '불멸의 대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짙어졌다.

ISU는 오는 6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제53회 정기총회에서 다뤄질 각종 안건(어젠다)을 모든 회원국에 발송했다. ISU가 보낸 안건에는 각 회원국과 기술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피겨·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의 새로운 규정이 담겨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기존 8개(점프 3개, 스핀 3개, 스텝 1개, 스카이트 1개)에서 스카이트 1개를 빼고 7개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남자 역시 기존 두 차례 스텝 시퀀스를 한 개로 줄이기로 했고,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의 필수 요소인 '더블 악셀'을 '더블 악셀 또는 트리플 악셀'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존 세 차례까지 허용했던 더블 악셀도 두 차례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아가 세운 최고점들은 한동안 깨질 수 없는 '불멸의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쇼트프로그램의 구성요소가 한 개 줄어들면 당연히 점수도 따라 낮아지게 된다. 쇼트프로그램 규정이 바뀌면 선수들은 5점을 날리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선수들은 예술점수(PCS)를 높이는 안무를 만들어야 하고, 트리플 악셀을 통해 점수를 높여야 하는 부담도 생겼다.

결국 김연아의 쇼트프로그램 최고점(78.50점)과 총점(228.56점)은 한동안 깨질 수 없는 대단한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 김태춘 권총 4관왕 명종

경호처장기사격 남자 고등부

김태춘(환일고)이 제6회 경호처장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권총 4관왕을 올렸다. 김태춘은 2일 서울 태릉사격장에서 벌어진 대회 25m 속사권총 남자 고등부 개인전에서 본선 564점, 결선 185.8점으로 함께

749.8점을 쏘아 1위를 차지했다. 김태춘은 남자 고등부 단체전에서도 강신구·최원영·임성호와 함께 1672점을 기록해 환일고의 우승을 이끌었다. 앞서 김태춘은 50m와 25m 권총 남자 고등부 단체전에서도 정상에 오른 바 있어 금메달 4개를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장상진 자유형 400m 우승

동아수영 남자 대학부 2관왕

국가대표 장상진(한국체대)이 제82회 동아수영대회 자유형 400m에 이어 1500m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장상진은 2일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남자 대학부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15분47초08의 대회 신기록

으로 1위를 차지했다. 종전 대회 최고 기록(15분49초63)을 2.55초나 줄였지만 박태환(단국대)이 가진 한국 기록(14분55초03)에는 50초가 넘게 뒤졌다.

장상진은 자유형 400m 우승에 이어 개인종목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가대표 남유선(부산광역시체육회)은 여자 일반부 개인혼영 400m에서 4분51초85의 대회 신기록(종전 4분52초38)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女 프로복서 박지현  
아시아 첫 6차 방어 성공



국제 여자 복싱 심의회(IFBA) 스트로급(46.270kg) 챔피언 박지현(25·인천대동)이 아시아 여자 복서로는 처음으로 세계 챔피언 타이틀 6차 방어전에 성공했다.

박지현은 1일 밤 충남 아산시 아산시민체육관에서 열린 6차 방어전에서 일본의 가미무라 사토코(35)를 심판 전원 일치 판정으로 3-0으로 꺾고 챔피언 타이틀을 지켜냈다. 아시아 여자 복서가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6차례나 방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 5월 공진(중국)을 판정으로 꺾고 챔피언 벨트를 떠낸 박지현은 지난 2월 5차 방어전에서 수잔나 워너(미국)를 판정승으로 이겼다. 이로써 박지현은 프로 통산 11승(4KO)2패를 거뒀고 도전자 가미무라를 6승(1KO)13패를 작성했다. /연합뉴스

**랜드3 고시학원**  
http://kwangju.land3.co.kr

**경비 지도사**

▶경비지도사 업무영역 확대로 주목받는 21C 유망자격증  
 • 특수경비원제도신설로 경비지도사업무와 역할중대  
 • 청원경찰이 민간경비 흡수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 수요증대  
 • 공동주택관리 업무에도 경비지도사 자격증 필요  
 • 첨단보안산업분야 취업시 자격증 취득 필수  
 • 기업체 보안유지 등 사회적으로 보안업체 증가추세

5월 10일 ▶취득시 취업 100%  
▶정찰직 채용시 가산점  
**국비환급**

시험일정	시험과목
1차 (11월14일)	법학개론, 민간경비법 2과목
1차 (11월14일)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경호학

LAND 3 529-0019  
합격의 새로운 이념

국/비/지/원  
**전기소방**

자격취득/중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분야)

❖ 실업자 및 계약제  
- 대상 : 실업자 야간대상 등 **개강 5월 3일**  
- 현재 접수 중, 선착순 00명  
6개월, 주 5일, 1일 4시간(오전반, 야간반)  
※ 본원 방문하여 상담접수 바람

❖ 직장인 과정(국비 100% 환급)  
❖ 산재장애인(무료)훈련수당 지급  
❖ 특전 - 병원, 호텔, 빌딩, 아파트 등 전기관리직 및 전기 전문 업체 취업보장

**병역 특례**  
군 미필자, 군면제를 받는 병역특례  
업체 / 취업알선(임명연기100%)

문의 ☎ 374-2404, 373-1959  
**건설전기기계학원**

**2010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보급**  
**정부무상보조금 50%** **선착순 신청접수**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시 전기요금의 80% 이상 절감  
**내 집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태양광 분야)**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계통연계형 3kWp이하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설치효과**  
월 사용량이 480kWh인 주택의 전기요금이 설치 전 103,660원/월 설치 후 19,070원/월  
**평균 80% 이상 전기요금을 절감!**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COSMOENG** (주)코스모이엔지  
www.cosmo-solar.com

080-7272-7000  
TEL. 062) 528-3571~3 FAX. 062) 528-3574